

P.I.R.A.M

PROLOGUE

“역대급 국어에 ‘멘붕’ 빠진 수험생...”

“‘역대급 불수능’ 2019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국어 영역 수능 출제 이래 가장 어려웠다.”

이번 2019 수능이 종료된 후 쏟아진 국어영역에 관한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기사 제목 그대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 같은 파트에 관계 없이 모두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했고, 80분이라는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낸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역대급’ 시험이었습니다. 1등급 컷은 역대 최초로 80점대가 나왔고요.

시험이 종료된 후, 학생들은 모두 하나같이 울부짖었습니다. 노력만으로 해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머리가 좋은 학생들만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동안의 수능과 다른 느낌으로 출제된 시험이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능이 수학 ‘능력’ 시험인 이상 재능이 한 요소로 기능한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그동안 수능에서 자주 시도하지 않던 ‘어려운 화작’, ‘까다로운 추론 문제’, ‘길고 긴 문학 선지’ 등으로 인한 낯섦이 체감난이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하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잘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잘 하는 학생이 잘 보는 시험.’ 비록 그 정도가 지나쳤지만 저 근본적인 요구는 그대로였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저 근본적인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글을 잘 읽고, 그 글에서 얻은 정보들을 자유자재로 이용해서 선지를 판단하는 것.

이 교재에서는 해당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평가원에서는 해당 능력을 묻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고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글을 읽고 사고하는지 아주 ‘실전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재에서 말하는 바를 꼼꼼하게 읽고, 스스로 생각하여 그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한 반복 연습을 통해 여러분 몸에 체화된 이 교재의 내용은 수능 시험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능은 길고 긴 레이스입니다. 이 교재의 내용이 여러분의 레이스를 위한 탄탄한 기초체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사고하고 연습하는 것. 이것만이 국어영역 고득점을 위한 길입니다. 굳은 각오를 다지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CONTENTS

교재의 사용법	4P
P (reliminar) step	
1. 지문, 문제를 대하는 원칙의 필요성	10P
2. 문학 공부의 시작 - 문학 개념어에 대하여	12P
3. 기출 문제로 익숙해지기	14P
4. EBS 연계의 함정	26P
I (mprove) step	
1. 문학, 허용과 내용일치	36P
2. 운문 문학 감상하기	40P
3. 현대시 연습	42P
4. 고전시가 & 복합 지문 연습	58P
5. 산문 문학 감상하기	86P
6. 현대 소설 연습	88P
7. 고전 소설 연습	114P
8. 극문학 연습	134P
9. 제시문 복합 지문 연습	146P
R (einforce) step	
1. 애매한 선지의 판단	172P
2. 기출로 연습하기	174P
A (dvance) step	
1. 원칙 강화 훈련	200P
M (aster) step	
1. 2019 수능 정복하기	232 P
교재를 마무리 한 후	244 P

1. 누구를 위한 교재인가요?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중 기본적인 문장 독해력과 어휘력이 갖춰진 '4~5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각 성적대별로 사용법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서 꾸준히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는 학생

사실상 이 교재가 거의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 교재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를 한다고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P step과 I step을 가볍게 훑으며 스스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얻어 가시고, R step과 A step을 통해 수능날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는 몇 개의 지문과 선지들을 대비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해와 문제풀이의 틀을 공고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서 꾸준히 1~2등급을 받는 학생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 가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교재를 정독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알게 된 부분을 확실하게 가져가시고, R step과 A step을 꼼꼼하게 공부해 주세요. 여기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연습을 거치면 높게만 보이던 만점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입니다.

3.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서 꾸준히 2~4등급을 받는 학생

이 교재를 통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국어에 대한 감이 없지는 않으나 말 그대로 '감'으로만 국어를 대하다 보니 점수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재의 단계를 처음부터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밟으시면서 지문과 문제를 대하는 본인만의 '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 교재의 내용을 100%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보세요.

4.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서 꾸준히 5등급 이하를 받는 학생

처음부터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지문들은 거의 신지 않았거든요.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기 전에 5개년 정도의 고1,2 교육청 기출문제를 뽑아서 '모든 문장'을 이해해보는 공부를 해 주세요. 모든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본 다음 이 책으로 와 주세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바로바로 찾아보면서 어휘력까지 챙기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장은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일단 시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본적인 문장 독해력과 어휘력을 갖춘 다음 이 책을 보실 땐 3번 케이스의 학생들처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책을 처음 보는 시점이 수능을 5개월 앞둔 6월 이후라면 그냥 3번 케이스의 학생들처럼 공부해 주세요. 단, 머리가 터질 듯한 고통과 이해가 되지 않음에서 오는 답답함은 감내하셔야 합니다.

ps : 이 교재에는 텍스트가 아주 많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텍스트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 교재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읽고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국어를 잘 하기 위한 첫 단계는 '텍스트에 대한 공포심 없애기'거든요. 조금만 긴 글은 읽지 않고 '세줄 요약'이라고 하는 게 습관이 되면 국어를 잘 하기 힘듭니다. 글이 너무 많더라도 굴하지 않고 다 읽어 내는 지구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2. 이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이 교재는 크게 5단계(P-I-R-A-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의 특징을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Preliminar : 국어 정복을 위한 예비 단계
- Improve : P단계를 통해 갖고 닦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실력 향상 단계
- Reinforce : 지문 읽는 법을 그대로 가져오며 문제풀이 능력을 강화하는 단계
- Advance : 더 어려운 지문에 배운 내용을 적용시켜 실력을 발전시키는 단계
- Master :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인 2019 수능을 풀어보며 배운 내용을 마무리하는 단계

기본적으로 이 단계를 꼭 따라오는 학생들이 읽기 편한 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름의 분량을 계획해서 처음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만, I step 에서는 조금의 변형이 가능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I step이 총 9파트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1. 문학, 허용과 내용일치’ 편을 읽으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뒤에는 해당 파트를 순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하루는 운문 문학 파트를, 하루는 산문 문학 파트를 공부하는 식으로 왔다갔다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파트는 그 전 파트를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공부해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순서대로 공부할 경우 산문 문학 파트를 공부할 때 짬에는 운문 문학 파트에서 배운 내용이 흐릿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렇게 왔다갔다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어느 날 한 파트를 공부했다면, 다음 날 다음 파트를 공부하기 전에 꼭 공부했던 파트에 대한 복습을 한 후 넘어가 주세요. 개념 설명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습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파트를 통해 얻었던 것’,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 등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 얻은 내용은 꼭 복습을 해주세요.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무기가 될 테니까요.

또 이 교재로 공부할 때는 굳이 문제풀이 시간을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충분한 시간을 써서 고민한 뒤 해설지를 봐 주세요. 문제만 빠르게 쓱 풀고 해설지를 보시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M step에서는 시간을 재고 풀어볼 겁니다. 2019 수능의 압박감을 느껴 보기 위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교재의 하이라이트는 해설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극찬을 받았던 ‘실전적이고 필연적인 해설’을 음미하며 공부해 보세요. 단순히 ‘왜’ 답이 ③번인지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③번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답의 근거를 찾고 넘어가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그 답을 고르기 위해서 했어야 하는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많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3. 이 교재를 다 본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교재를 끝낸 이후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지만, 여기서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교재는 굳이 n회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꼼꼼하게 1회독을 끝내신 후에 이 교재는 그 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헛갈리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꺼내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의 국어 공부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에서는 2019 수능에서 어려워진 '화법과 작문' 파트에 대한 자료와 낯선 지문을 통해 배운 내용을 연습할 수 있는 주간지, 문법 개념을 점검할 수 있는 문법 기출문제 모음집 등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수월한 복습을 위해 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만 따로 편집하여 올려 드릴 것입니다. 국어와 관련된 질문답변은 기본이고요.

카페를 가입하신 후, 교재를 구매하셨다는 것을 인증해 주시면 모든 자료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카페에 있는 자료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서 다양한 지문들에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끊임없이 적용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능은 최대한 많은 훈련을 통해 독해력과 선지판단력을 극한으로 끌어 올린 학생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배운 내용을 최대한 많이 연습해 주세요.

카페 주소 : <https://cafe.naver.com/piramgukeo>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영역을 정복하러 떠나 봅시다.

P

[preliminar] step

문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어를 습득하고 '수능 문학'을 대하는 태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공부가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하시면 빠르게 읽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3. EBS 연계의 함정' 파트는 꼭 읽어 주세요.

1

P.I.R.A.M

지문, 문제를 대하는 원칙의 필요성

Be simple

수능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시계 및 필기구, 부모님이 꼭두새벽부터 정성스레 싸주신 도시락. 이 모든 것을 들고 도착한 수능 시험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화장실도 가 보고, 불안감에 이것저것 펼쳐보게 되는 그 시간. 잠시 후, 감독관이 들어오고, 울리는 1교시 본령. 앞으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16페이지의 시험지와 단 한 장의 OMR카드. 그리고 그 순간, 하얗게 되어 버린 머릿속.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은 기억나지 않고, 오로지 내 손끝의 감각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정답만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위의 상황은 여러분의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간에 일어나게 될 상황입니다. 80분이라는 많지 않은 시간에 45문제라는 적지 않은 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나야 한다는 긴장감. 이 시험의 결과가 수능 전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전체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그 속에서 컴퓨터용 싸인펜을 들고 있는 여러분의 손가락은 정답만을 향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각종 이론과 기술들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을까요? 수능을 3번씩이나 본 제 생각에는, 매우 힘듭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몸에 붙어있는 대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배운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시험 뒤에 오답점검을 했을 때 ‘아 이거~’ 하면서 떠오를 뿐이죠. 그때는 의미가 없다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떠한 난이도, 어떠한 제재의 지문과 문제가 출제되어도 흔들림없이 글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간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고, 풀이과정, 행동지침... 이 모든 것이 간단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지문과 문제가 나와도 그것을 본인의 ‘일관되고 정확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고를 간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고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본인만의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끊임없이 익혀주면 됩니다. 그 원칙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여러분 몸에 원칙을 체화하는 것. 사실상 이것이 국어 공부의 전부거든요.

이 교재에서는 여러분이 1년간 반복연습 할 ‘간단하고 일관되며 정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책을 읽다보면, 지겹도록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원칙을 100% 흡수해도, 50%만 흡수해서 이와 다른 본인만의 원칙을 만들어내도 좋습니다. 다만 간단해지세요. Be simple. 이것이 수능 국어 영역을 푸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문학 정복을 위한 원칙 공부에 나서기 전에,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다뤄 봅시다.

학생들은 문학 개념어를 영어 단어처럼 공부하기 귀찮은 것, 지루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문학 개념어 공부를 소홀히 하고 수능에서 쓴 맛을 보기도 하죠.

사실 맞습니다. 문학 개념어를 제대로 공부하면 끝이 없고, 헛갈리기만 하면서 귀찮습니다. 개념어에 대한 연구는 꽤나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파트거든요. 예를 들면 ‘단호한 어조’라는 개념이 있을 때, 어디까지가 단호한 어조라고 할 수 있나요? ‘너는 지금 길을 걷고 있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호한 어조인가요 아닌가요? 단호하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라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애매한 것이 문학 개념어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건 ‘문학’이 아니라 ‘수능 국어영역 문학’입니다. 평가원은 절대로 이렇게 애매한 것을 출제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까지만 수능에 출제하지, 논란이 있는 내용을 출제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수능에 나오는 문학 개념어는 ‘사전적 정의’와 같은 뜻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근거라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문학 개념어는 대부분 여러분의 어휘력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서의 환기’라는 개념어가 있으면 ‘환기’의 사전적 정의인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에 맞추어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는구나!’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평소에 모르는 어휘는 찾아보고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 있으면 생각보다 문학 개념어에서 무너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는 조금 다른, 혹은 학생들의 생각보다 더 넓은 범위나 더 좁은 범위만을 인정하는 개념어들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계속 설명할 ‘색채 대비’가 그런 예시인데, 우리는 ‘대비’라고 하면 흰색-검은색 혹은 파란색-빨간색처럼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색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가원에서는 ‘흰색-초록색’처럼 통상적으로 ‘대비’된다고 인식되는 색이 아니라도 ‘색채 대비’로 인정을 합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휘력의 측면에서 문학 개념어를 바라 봐야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해 두면 되겠네요.

이 교재에서는 사전식으로 모든 개념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 기출 되었던 선지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 게요.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국어 영역’으로 이름이 바뀐 이후, 즉 ‘2014학년도’ 시험부터 작년 9월 모의평가까지 (작년 수능은 M step에서 풀어 봐야 하니까 제외할게요.)만 해 봅시다. 이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 ‘내 손으로 만드는 문학 개념어 사전’이 있을 텐데, 그곳에 배운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해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럼 출발해 봅시다.

기출 문제로 익숙해지기

3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문 문학)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명령형 : '~해라'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허용 가능합니다.

주제 의식 부각 : 시의 모든 표현은 주제를 부각합니다. 모든 시에서 허용 가능.

* 이렇게 '모든 시에서 허용 가능'한 선지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나올 때마다 표시해 드릴 테니 모두 정리해 두세요.

-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 시골의 느낌이 나면 허용 가능합니다. (ex. 흙 냄새..)

→ 행의 길이가 한 글자라도 변하면 허용 가능합니다.

→ 동일 : 토씨 하나까지 똑같아야 합니다. cf) 유사 : 대~충 비슷하면 됩니다.

유기적 결합 :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가 있으면 당연히 허용 가능합니다. (어휘적 측면으로 생각합시다!)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문 문학)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표현, '나'가 관찰자가 아닌 주인공)

→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 및 심리, 그리고 그 근거까지 썩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 관찰자는 심리와 그 근거를 모르고 있겠죠?

- ④ 서술자가 회상을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 회상 : 과거 이야기

외부 이야기 : 현재 서술중인 세상이 아닌 이야기(여기서는 과거 이야기)

내부 이야기 : 현재 서술중인 세상의 이야기

- ⑤ 서술자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굳이 설명하지 않는 선지들, 그리고 실지 않은 문제들은 어휘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개념어들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시고, 헛갈리는 부분만 질문해 주세요.

문학, 허용과 내용일치

본격적으로 시와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문학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수능 문학은 그야말로 껌입니다. 정말 잘근잘근 씹으며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능 국어 영역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수능 국어 영역에서 가장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생소하고 지엽적인 문법 개념? 많은 정보량과 어려운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비문학? 도저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 시?

다 아닙니다. 물론 공부할 때는 저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을 옥죄고 고통스럽게 할 요소는 바로 '시간'이라고 확언합니다. 특히 2019학년도 수능처럼 미친 듯한 난이도로 출제된다면 더욱 더 그럴 것이구요.

따라서 우리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은 어디가 있을 까요?

먼저 화법과 작문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을 현장에서 응시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평가원이 '많은 정보량 & 상세한 내용일치'를 바탕으로 시간을 많이 쓰게끔 설계하고 있고, 빨리 풀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비가 내릴 수 있는 영역이기에 여기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문법은요? 문법의 경우 최근에는 단순히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문 및 <보기>의 독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의 적용을 묻고 있습니다. 즉, 그냥 개념을 빠삭하게 알고 많은 사례를 아는 것으로만 시간 단축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빠삭한 개념과 많은 사례를 아는 것은 기본 소양이 되어가는 추세죠.

그럼 비문학??? 제 교재 비문학편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그냥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읽으면서 해야 할 생각, 선지를 판단하면서 해야 할 생각의 양이 다른 영역에 비해 압도적이라 정확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시간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남은 것은 문학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시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읽는 방법, 그리고 선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한 번만 교정해도 정확도와 속도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문학 모든 지문을 보통 15~20분 정도 만에 풀어 내고 비문학에 30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이러면 비문학의 정확도도 자연스레 오르겠죠? 결국 문학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느냐가 그 시험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 궁금해서 미칠 것 같죠?? 이제부터 제가 문학을 풀 때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문학이라는 날개를 단 채로 2020학년도 수능을 정복해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하나의 작품이나 단어, 문장에 대해 감상자들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것은 감상자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가진 배경지식, 또 감상할 당시의 심리상태 등이 반영되어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 와닿지 않는다면, 예시를 들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다고 합시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 시구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거 같은가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답은, ‘내 마음이 넓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이기도 하고, 호수의 넓다는 속성을 이용한 훌륭한 해석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호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푸른 산 속에 노루가 뛰어놀고, 그 산 속 한가운데에 있는 호수.. 그 호수의 물을 먹는 노루들이 뛰어 노는 ‘평화롭고 깨끗한 분위기’. 물론 집 근처에 더러운 호수가 있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런 이미지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며 ‘마음이 깨끗하다’ 혹은 ‘마음이 평화롭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의 시구에 대해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해석 중, 맞는 해석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세 개 다’입니다. 셋 다 호수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딱히 틀린 게 없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선지들입니다. 이렇듯 문학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을 다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수능’이잖아요? 수능이 어떤 시험입니까? 본질적으로는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고 ‘등급’을 나누기 위한 시험입니다. 등급을 나누기 위한 시험이라면 당연히 정답과 오답이 있어야하고, 정답과 오답이 있으면 또 당연히 ‘틀린 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대로라면, 수능 문학 시험에서 틀린 선지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허용할 수 있는, 딱히 틀린 것이 없는 선지들이니까요. 그래서 평가원이 선택한 방법은, ‘DOG SOUND’ 만들기입니다. 말 그대로 개소리를 만드는 거죠. 이 개소리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팩트로 따졌을 때 틀린 소리’라는 뜻입니다. 주관적인 문학에서 객관적인 팩트만으로 내용일치를 따졌을 때 틀린 선지가 수능 문학에서의 틀린 선지라는 뜻입니다.

아직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설명해보면, ‘내 마음이 호수요.’라는 시구를 ‘내 마음이 불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DOG SOUND라는 겁니다. 호수는 누가 봐도 물인데, 그것을 불이라고 표현했으니 ‘누가 봐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보기>나 다른 시구에 의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 시구만 보고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이제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런 선지를 찾는 것이 수능 문학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이러한 ‘허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작품을 완벽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수님들은 우리에게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고등학생 수준에서 그 작품을 확실하게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교수님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친절하게도 해석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기>와 선지를 이용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위에서 말했던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평화롭다.’, ‘마음이 넓다.’ 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마음이 불타고 있다.’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걸 찾으려면, 호수가 물이라는 것만 파악하면 되겠죠. 우리가 굳이 호수가 넓다라는 해석을 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호수가 넓다라는 말을 보고, ‘음 이 정도면 딱히 틀린 게 없네.’라는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각 문장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어떤 개념어들이 쓰였는지를 생각하며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화자가(소설의 경우에는 인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만 잡아두고, 그것을 토대로 선지들을 ‘평가’해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문학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선지에 나와 있는 ‘다른’ 해석을 ‘허용’해주고, ‘틀린’ 해석, DOG SOUND 들을 틀렸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런 이유로, ‘수능 문학’을 공부할 때는 ‘평가원 기출문제’만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청, 사설 문제 등은 어쩔 수 없이 수능과는 다른 ‘허용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평가원 기출 외에도 다양한 지문들로 연습했던 비문학편과는 다르게 이 교재에서는 평가원 기출문제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재에서 말하는 ‘허용 기준’을 완벽하게 익혔다고 생각될 때, 그 때 사설 문제를 건드려 주세요. 여러분이 사설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가 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야 사설 문제를 푸는 의미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석을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러 갑시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문학의 핵심은 결국 '허용 가능성 평가'입니다. 주관성이 본질인 문학에서, '틀린 선지'를 내려면 누구도 허용할 수 없는 '개소리'여야 한다!

그런데 이 '개소리'의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뭔가 객관적으로 애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오늘의 주제인 '시'의 정의를 한 번 찾아봅시다.

문학의 한 장르.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니라, 네이버 국어사전이라는 나름 권위 있는(? 아마 네이버가 권위 있는 단체의 정의를 참고했겠죠.) 곳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대충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쉽게 풀어 봅시다. 자연이나 인생이 뭔가요?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혹은 화자가 놓인 시간적, 공간적 배경 등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화자가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감흥과 사상'은 뭔가요? 화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즉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저 정의는 쉽게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시의 정의에서 찾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과 반응'이 그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어떤 시든 저 정의에 의하면 상황과 반응은 나타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드러난 '상황과 반응'은 해석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확실한 'fact'라는 것이죠. 화자가 서럽다는데 아닌데!! 이놈 기쁘는데!! 빼애액!!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팩트인 상황과 반응만 찾는 겁니다.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화자가 왜 그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 감정을 통해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해석의 여지가 남지만, 상황과 반응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추가적으로 약간 특이한 사항을 체크해주면 베스트입니다. 이 '특이한 사항'이란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면 보이는 부분인데, 대구법이나 의인법, 색채 이미지나 시간의 흐름 등등 '뭔가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이걸 사실 체크를 못 해도 문제 풀다가 다시 돌아와서 찾으면 되는 부분이기엔 굳이 못 찾아도 되지만, 미리 찾으면 이득이 되니 '보이면' 체크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 시를 읽을 때는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과 반응'만 잡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해석은 교수님들이 선지에서 해줬잖아요! 우리는 그 해석들을 '상황과 반응'을 토대로 '평가'만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된 문제들을 풀어 봅시다. 편의를 위해 ‘현대시 / 고전시가&복합’으로 파트를 나누었지만 이들이 모두 운문 문학인 이상 ‘상황과 반응’만을 잡으면서 해결한다는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상황과 반응만을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지의 해석을 ‘평가하기.’ 한 번 해 봅시다.

-2011.06 [19~22]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뺨 두 뺨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降雨)」-

(나)

어두운 방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
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생,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
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떠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시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에는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3.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마음이 ‘이 사람’과 함께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나타낸다.
- ②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이 사람’과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에서 화자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과는 다를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다.

4.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① 제1연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 ②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이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 ③ 제2연의 제2~3행에서 화자는 ‘여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 ⑤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계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야. 그곳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해.

간단하죠? 그럼 어떻게 허용과 내용일지, 상황과 반응으로 시문학을 해결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학문제를 풀기 전에는 항상 <보기>의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다양한 해석이 허용되는 문학에서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즉 해석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해놓기 위해 제시하는 것이 <보기>입니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보기>는 슈퍼갑입니다. <보기>에서 서울대학교가 부산에 있다고 하면 부산에 있는 거예요. <보기>가 어느 정도 감상을 편하게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보기>를 먼저 보고 가는 습관을 들입니다. (비문학에서는 지문 읽기 전에 어차피 <보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비문학에서는 바로 지문 읽는 게 좋습니다.)

— <보 기> —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보기>가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이거 하나 있네요. (다) 시인 ‘서해’에 관한 시인데,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오 일단 바다의 의미가 다양하고, 당신에 대해 역설적인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역설적인 태도가 무엇일지 나중에 (다) 시를 읽을 때 생각하며,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납치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降雨)」 —

화자 - 상황 : 부재, 밤, 비가 올

- 반응 : 그리움, 풀 죽음, 체념

한 연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며 읽어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해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먼저 조금 전까지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라고 하네요. 어디로 갔나 부분에 굵은 글씨 처리된 이유는 시의 상황을 제시하는 어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의 핵심은 상황과 반응! 어디로 갔나. 라고 했으니 누군가가 부재한 상황이네요! 이걸 팁으로 제시하는 건데, 부재한 상황이 제시되면 99% 이상 반응으로는 ‘그리움’이 나옵니다. 부재했는데 그래 너 없이 잘 살게! 라는 내용은 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 대상이 없어서 그림고 서러운 반응을 보이죠.

아무튼 밥상도 그대론데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하네요! 말도 없고, 내 목소리만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고..! 계속해서 부재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네요.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옆구리 담피가 또 도진 것도 ‘이번에는’ 아닌 것 같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갔었거나 옆구리가 아파서 대답을 못했던 적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래요... 자세한 사정은 이야기를 안하는데, 어둠 속.. 비가 온다고 하네요. 이것도 상황의 일종이니 체크를 해주어야겠죠! 밤이고 비가 오는 상황 어구나..!

그리고 나서 혹시나 그 사람이 올까 밖을 보는데 그냥 풀이 죽는대요. 풀이 죽었다는 ‘반응’ 체크해줘야겠죠! 왜 풀이 죽었는지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지만, 굳이 하지 못 해도 괜찮습니다. ‘풀이 죽는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비가 세차게 내려서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크게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약간 체념적인 반응이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읽고 나면, 지문 밑에 적어둔 것처럼 화자의 상황과 반응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발견한 팩트는 딱 저기까지고, 저것을 토대로 허용할지 말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다음은 (나)시 한 번 봅시다.

(나)

어두운 방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찾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
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생,

젊은 아버지의 서느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
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화자 - 상황 : 가족들이 자신 간호 → 회상, 겨울, 시간
흐름

- 반응 : 그리움, 서러움

일단 ‘어두운 방 안’이라는 공간이 제시되었습니다. 공간은 상황에 해당하니 당연히 체크를 해주어야겠죠? 그리고 어두운, 빠알간 등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네요! 이런 게 위에서 말한 특이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법은 웬지 평가원이 출제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요! 이 감은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풀다보면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애처로이 찾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네요..! 상황 자체가 어떤 아이가 아픈 상태고, 그 아이를 할머니가 간호하고 있나보네요. 그 뒤 눈 속! 겨울이군요. 겨울 눈 속을 헤치며 아버지가 약을 들고 돌아오셨네요. 화자는 산수유(약)을 가지고 오신 아버지의 옷자락에 불을 말없이 부비고 있네요. 상황이 그려지시죠? 시는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읽어주면 내용이해가 쉽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할머니가 간호하는 와중에 아버지가 약을 사오셨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모습들.. 그려지시죠?

그리고 이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시상의 전환이란 개념은 이렇게 뭔가 시가 두 부분으로 끊어지는 듯한 구간을 말합니다. 위의 시에서는 아이가 아프던 장면에서 화자가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은, 즉 ‘시간이 흐른’ 상황을 제시하고 있네요. 도시라는 공간도 제시하고 있구요. 여기서 시상의 전환을 알아차릴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흘렀다는 ‘상황’은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반응’에 집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해 보세요.

이런 서른 살이 화자는 ‘서럽다’고 합니다. 서럽다는 게 뭔가요? 시간이 흘렀다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정, 즉 ‘반응’이 되겠네요. 나이를 먹은 게 서럽다는 것이죠. 저도 나이를 먹는 게 서러워지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네요.. 여러분도 얼마 안 앓을 겁니다 ㅎㅎ 아무튼 그 서러운 서른 살에 아버지의 옷자락을 느낀 다네요!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반응’을 잡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사주신 산수유 열매가 혈액 속에 흐르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다시 한 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좀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껏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어떤 주관적인 해석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팩트, 즉 상황과 반응만을 가지고 읽어가고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상황과 반응에만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를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

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화자 - 상황 : 부재, 서해 가지 않음 (당신이 있을지도 모르니)

- 반응 : 그리움

이 시는 그래도 조금 쉽네요. 화자는 아직 서해에는 가보지 않았답니다. 이게 이 시의 상황인거예요. 화자가 아직 서해를 가지 않았다. 그곳 바다도 여느 바다와 똑같은 것인데, 화자는 왜 안 가나 보니 당신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니 안 가겠다는 거네요. 이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서해까지 갔는데 당신을 못 찾으면 너무 슬플 테니까 안 갈 거야! 라는 거군요. 아무튼 그 서해 바다는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자는 당신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는데 서해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리고 <보기>와 연관 지어 생각해보니, 화자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은데 보러 가지는 않는 그런 역설적인 태도를 바다의 다양한 의미 (갯개펄에 작은 게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통상적인 바다의 의미와 자신의 마음속에서 파도치는 등)를 통해 드러내고 있네요! 이러면 이 시가 완전히 이해되

시겠죠? 물론 이렇게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이해하려고 애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풀면서 깨달아도 충분해요.

이제 우리가 찾은 상황과 반응이 어떻게 문제에 쓰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1. ④

- 먼저 공통점을 묻는 문제네요. 이런 문제, 즉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학 개념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기 보이는 대구, 리듬감, 사물에 인격, 도치 등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P step을 바탕으로 충분히 공부하고 넘어왔죠?

자 그런데, 이 문제의 정답인 4번 선지는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니, 감각적 심상이란 건 시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뭐죠? 시의 기본적인 정의네요. 아 그러니까, 4번 선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시다.'라는 겁니다. (가)~(다)는 시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요. 이처럼 시의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선지들. 예를 들어 상황에 대한 반응을 드러낸다. 혹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등등이 자주 정답 선지로 등장합니다. 이런 선지가 나온다면 땡큐!를 외치며 쉽게 답을 고르면 되겠죠?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기본적인 문학개념어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개념도 없고 모두 각 개념을 알고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지이기에 굳이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모르겠다면 카페를 이용해 따로 질문 주세요!

2. ④

-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가)시와 (나)시를 비교하라고 하네요. 시문학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뭐다? 상황과 반응을 토대로 허용할지 말지 평가한다. 그렇죠. 그 원칙대로 해결해봅시다.

① 독백적 어조는 맞죠 일단. 혼잣말 하고 있고 상대의 리액션이 없으니까요. 이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내면, 즉 화자의 마음속(화자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네요! 충분히 허용 가능한 선지네요.

② (나)시에서 과거와 현재 모두 '눈이 내리는 상황'이네요. 이 눈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어때요? 딱히 틀린 것 없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틀렸나요? 아니죠? 그럼 허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슬슬?

③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 (가)는 확실히 없고 (나)에는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선지구요. 이 과거 장면도 결국 화자의 상황에 해당하기에, 상황을 집요하게 체크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지네요. 위에서 시간이 정지된 것이 기본인 시에서 시간이 변화한다면 평가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 읽으면서 생각해두자! 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네요.

④ '그리움'이란, (가)시와 (나)시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응'이네요. 그런데 (나)시에는 그리움이 없다고 하니 허용할 수 없는 선지가 되네요. 답은 4번이네요!

⑤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란 말이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란 비문학으로 치면 '제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시의 상황과 반응을 관통하는 시어 같은걸 말하죠. 보통은 제목이 이것에 해당하는데요. (가)시의 빗발이나, (나)시의 눈 혹은 산수유 열매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라는 건 사실 시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재가 없는 비문학 지문을 상상해 보세요. 글이 성립이 안되겠죠? 그래서 5번 선지도 1번 문제의 4번 선지처럼 '시라면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됩니다.

3. ③

① 마음이 평온하다? (가)시의 전체적인 반응을 봤을 때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의 밥상을 보고 평온함을 느끼고 있지도 않구요. 허용할 수 없는, dog sound네요. 상황과 반응을 봤을 때 이 선지는 누구도 허용할 수 없는 선지겠죠? 이게 바로 수능 문학의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② ㉡이 화자와 '이 사람'의 소통이라고 했는데, 이 시에 그런 상황이 드러났나요? 둘이 소통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③ 지문을 보니 ㉢ 위에서 화자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답이 ㉢인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전과 달리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어떤가요? 부재한 상황, 그리워하는 반응을 토대로 봤을 때도 딱히 틀린 것이 없군요. 이런 게 바로 맞는 선지인 겁니다. 누군가는 허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선지!

④⑤ '배신감, 다짐'은 반응의 일종인데, (가)시에서 이런 반응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둘 다 허용 불가한 선지가 되겠네요!

4. ④

①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고,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긴다... 상황과 반응으로 봤을 때 딱히 틀린 것은 없네요.

② 그곳 바다는 서해를 말하는데 아직 안 가봤으니 알지 못 할테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가봐서 알고 있는 바다인가봐요. 근데 둘 다 비슷하다고 하고 있으니 충분히 허용되네요.

③ 2연에서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는 것 충분히 허용 되고, 그 바다가 멀리서 몸을 뒤척인다니까 뭔가 화자랑 먼가봐요. 이게 물리적 거리가 멀다는 건지 마음속 거리가 멀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화자와 당신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는 건 충분히 허용이 되겠죠? 화자가 강원도 동해 끝에 살고 있어서 물리적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도 '심리적 거리가 멀다'라고 해석한 게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맞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허용'해주는 겁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죠?

④ '의지'라고 했습니다. 3번 문제 5번 선지의 '다짐'처럼 '의지'라는 반응을 보여주는 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시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지'라는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해에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온다면 매우 합당한 해석이지만, 4번 선지는 '서해'에 '가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네요. 어찌됐든 4번 선지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틀린 선지네요.

⑤ 시의 상황과 반응 및 시구를 통해 충분히 허용이 되겠죠?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상황과 반응을 정확하게 잡아두고, 그것을 토대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이게 시문학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이걸 하려면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의 학습은 필수니까, 꼭 공부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기출 문제들도 풀어 봅시다! 준비 되셨죠?

원칙 강화 훈련

[1~3]

—〈보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귀향의식’이라는 것이 담긴 작품들인가 봅니다.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이기도 하면서, 미완의 형태로 남기도 합니다. 이 ‘귀향의식’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읽어 봅시다.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꿇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잦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화자 - 상황 : 늦겨울~초봄, 고향을 떠나있음
- 반응 : 그리움, 주인집 늙은이 → 눈물지움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단 늦겨울~초봄인 상황이네요. 그리고 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나룻가의 행인, 고향 가차운 주막의 노인,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은 전부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눌 수 있는 상대들이네요. 이 시는 〈보기〉에서 말한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고향을 바라보고 있네요!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룸의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풍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무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

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셔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가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낮은 집」 -

화자 - 상황 : 귀향,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름 → 한참 어두워짐

- 반응 : 어설피함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는 달리 귀향을 한 상태네요. 그런데 귀향이 '어설피다'고 합니다. <보기>에서 말한 미완의 형태로 남은 귀향의 일종인가 봐요. 아무튼 겨울 헤어름 짬에 슬레이트 돌담집이라는 고향으로 온 화자는 어설피 귀향 속에서도 가족들의 애정 어린 행동들을 보고 있네요. 은근히 평화로운 공간으로 고향이 인식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당시 수험생들은 조금 다르게 읽었어요. 바로 이 지문이 'EBS 연계 지문'이었거든요. 당시 많은 선생님들은 '귀향을 어설피함'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었고, EBS 연계교재를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능날 이 지문이 나왔고, '어설피함'에만 초점을 맞췄던 학생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왜 인지는 문제 풀면서 알아볼게요.

1. ①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근감 허용할 수 있겠죠. (나)의 화자는 귀향이 어설피하다고 했으니 역시 허용이 되겠군요. 답은 바로 1번이네요. 쉽죠?

② 조상의 권위, 가난 모두 그럴 듯한데 그 공간, 즉 고향을 벗어나려 한다는 건 허용하기 힘들겠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반응을 보여 주고 있었잖아요.

③ 완전 개소리네요. 인심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④ 역시 삶의 무상함을 허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⑤ 역시 개소리네요. 농촌 모습 보존, 산업화 등을 허용할 근거가 없어요.

2. ③

① 얼음장 떼내려가는 것은 시각적 묘사 맞으니까 허용 가능하겠네요.

②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서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선지네요.

③ 화자는 장꾼들에게 자신의 고향을 보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장꾼들의 설움은 전혀 나온 적이 없어요.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답은 3번.

④ 자신의 부모한테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라는 객관적 표현을 썼으니 허용되겠네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회사원 내외' 같은 표현 안 쓰죠..?

⑤ 화자의 '어설피함'이라는 반응을 통해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쉽죠?

3. ①

① (가)에서는 주인집 늙은이와 양귀비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집 늙은이가 눈물짓는다고 했으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화자가 그 슬픔에 공감한다는 것은 딱히 틀린 것은 아니네요. 하지만 화자가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나요? 화자는 그냥 고향이 그리운 겁니다. 타인과의 조화나 따뜻한 현실 만들기를 하려는 모습은 <보기>에서도, 지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만약 이걸 꾸역꾸역 허용한다 해도, 귀향을 '완성'하려는 모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화자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이지 귀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선지인데, 평가원은 허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이에요. 기준을 잘 잡으시다!

② 화자의 반응을 토대로 충분히 허용할 수 있죠?

③ 역시 마찬가지로요.

④ 그리고 4번 선지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3번 선지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3번 선지는 (나)는 '고향 좋아!'라고 한다는 거고, 4번 선지는 (나)가 '고향 싫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보통은 둘의 내용이 정반대니까 둘 중 하나가 정답이어야 하는데, 평가원은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평가원이 '문학은 허용의 영역이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4번을 고른 경우가 많았어요. '분명히 선생님은 고향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1번도 애매하고.. 애가 답이구나!'라고 말이죠. 하지만 3번 선지와 4번 선지 모두 화자의 상황과 반응을 토대로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선지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EBS 교재의 해석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⑤ 역시 고향 앞 주막, 어설피함 등을 통해 허용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EBS 연계교재를 공부할 때의 주의할 점을 알려주는 문제예요. 결국 EBS 연계교재라 하더라도 보편적인 해석을 외우듯이 공부하지 말고, 상황과 반응을 찾는 연습을 하는 도구로써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한 적 있었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숙지해주세요!

[4~9]

역시 <보기> 먼저 확인해 봅시다!

— <보 기> —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보 기> —

(가)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라면, (나)의 공간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 줘야 하는 극의 특성상 극중 인물의 현실이 상징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공간들은 때로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 <보기>를 통해서 (가) 시의 화자가 생활과 시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보기>를 통해서 (가)와 (나)에서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한번 가 봅시다!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면 산정에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낡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화자 - 상황 : 시와는 반역된 생활,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 낡아빠진 생활, 산정

- 반응 : 쑥스러움

<보기> 말대로 화자는 지금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는 낡아빠진 생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생활이 급한데도 시를 배반하고 사는 것이 마음에 편하지는 않나봐요. 화자는 이런 자신이 쑥스럽고, '산정'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구름이라는 것(아마도 시를 의미하겠죠)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생활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뇌의 삶을 노래한 시네요!

(나)

함이정 : 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듩직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일 슬픈 일 뭐든지 의논할 수 있는 내 아들…… 그러다가 너를 느꼈고…… 네 느낌과 이야기 하길 즐겼다. 사람들은 나 혼자 중얼중얼 거린다고 괴상하게 보더라. 사실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조승인 :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함이정 : 처음부터……?

조승인 :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 그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 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안으로 들어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지. “동연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가 어찌나 찌렁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지 들릴 것 같더라.

(조명, 밝게 변화한다.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함묘진의 집. 함묘진이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이정과 조승인은 서연의 관, 촛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함이정과 조송인은 모자 관계네요. 그렇게 조송인은 함이정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두 분 아버지'라고 하네요. 아버지가 두 명인가봐요. 함이정은 그 때 이야기를 해주는데, 함이정의 아버지, 즉 조송인의 할아버지가 화가 난 상태로 동연아! 서연아! 하면서 찾았다고 합니다. 두 아버지가 각각 동연, 서연인가 봐요. 이제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함이정의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지네요. 이렇게 '과거'로 왔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 체크는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또 () 부분은 제가 말한 '대사 외 부분'이죠?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 체크하며 읽어봅시다!

함묘진 :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함묘진 : 여기 집 안에도 없다……?

함이정 : (무대 밖에서)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함묘진 : 넌 가만 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 동연아! 서연아!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송인, 무대 안으로 나온다.)

조송인 : 할아버지 목청은 왜 그렇게 커요?

함이정 :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묘진 : 동연아! 서연아!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함묘진 앞에 선다.)

동연, 서연 : 부르셨습니까?

함묘진 : 작업장엔 너희들이 없더구나!

동연 :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함묘진 : 밖에는 왜?

동연 :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묘진 : 말다툼?

동연 : 네.

함묘진 : 서연아, 네가 다툼 이유를 말해 봐라.

서연 : 송구스럽습니다…….

함묘진 : 너희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런 너희들이 말다툼을 하다니, 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더냐?

서연 :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묘진 : 그런데, 너는?

서연 :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동연 :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이제 과거 장면입니다. 그런데 대사 외 부분인 지시문에 '무대 밖에서'라는 표현 보이죠? 극문학에서는 무대의 안팎을 민감하게 물어봅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함이정의 아버지인 함묘진이 동연, 서연을 찾아요. 둘 다 집에 없나 보네요. 이 때 함이정과 조송인이 무대 안으로 들어오네요. 이런 깨알 정보 놓치지 마세요! 극문학의 핵심이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기에 무대 안팎은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동연과 서연은 당황해서 함묘진 앞에 서는데, 둘이 말다툼을 했나 봐요. 내용은 겁나 심오해요.. 저런 걸로도 싸우는구나.. 아무튼 둘이 싸우는 상황이었네요. 이 장면은 여기서 마무리 됩니다. 뭐지? 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둘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조명,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함이정 : 개울물이에요, 서연 오빠. 여기서 길은 끊겼어요.

서연 : (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며) 너도 마시렴. 목마를 텐데…….

함이정 :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 얼굴 뒤엔 구름이…… 구름 뒤엔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물이 맑고 시원해요.

(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

함이정 :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 물부처요?

서연 : 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함이정 :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 서연 오빠…….

서연 :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 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조승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쪽, 눈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 코러스 (돌부처)들,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온다.)

조승인 :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연, 등장한다. 그는 조승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

이번엔 서연과 함이정의 이야기네요. 서연과 함이정이 길을 걸어 가는데, 개울물에서 길이 끊기네요. 거기서 서연이는 또 물부처를 만드는 등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함이정과 반대 방향으로 가며 헤어지네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는데, 밑을 보면 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 부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네요. 그냥 '대사 외 부분'이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피아노는 왜 나오는 거야...

이번엔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며 조승인이 함묘진에게 말을 겁니다. 함묘진은 극락문이 열렸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사라지고요. 그러다가 동연이가 나와서 조승인에게 전보 용지를 주네요. ???? 내용은 도통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를 모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인트 체크는 다 한 거 같아요. 인물 관계도 파악했구요.

4. ②

① 여기저기 살펴보는 거 맞고, <보기>와 반응을 통해 성찰하는 거 허용할 수 있죠.

② '나의 친구'에게 자신의 '그릇된' 삶을 꾸짖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는 거죠. 심지어 시에선 아직 친구가 방문하지도 않았으니,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선지네요. 답은 2번.

③~⑤ 상황과 반응을 토대로 하면 쉽게 허용할 수 있는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으면 항상 질문해주세요!

5. ②

① <보기>에서 진술한 자기 성찰이 있다고 했고, '시와는 반영된 생활' 역시 성찰에서 비롯된 상황 표현이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갈등을 해소했다면 뒷 부분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이 시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갈등해소라는 엄청난 반응을 놓쳤을 리가 없죠.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답은 2번.

③ 화자는 현재 '생활'에 몰두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디로든 가야한다는 건 '시' 쪽으로 가야한다는 말로 '허용'할 수 있겠죠? 물론 어디로든 간다는 게 '생활'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3번 선지의 내용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④ 역시 3번 선지와 같은 맥락에서 허용이 가능하구요.

⑤ 역시 갈등 있고, 시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상황과 반응을 토대로 한 허용 가능성 평가하기. 별거 아닙니다.

6. ①

① [A]에 대상의 나열있고, '쑥스러움'이라는 정서가 촉발된 상황이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바로 정답이네요... 역시 수능 문학은 정말 쉬워요. 우리의 원칙만 있으면 전부 명쾌하게 떨어집니다.

② 일단 연쇄는 있어요. 얼굴 - 구름 - 하늘로 의미도 확장되고 있고요. 하지만 함이정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는 않죠? 혼란스러운 심리가 있었다면 체크를 했겠죠.

③ [A]에서 화자는 쑥스럽다고 했어요. 이게 만족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B] 역시 행복하게 개울가에 있는 장면이니 불만을 허용하기 힘들구요.

④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인물 간의 단절감은 좀 심했네요. 둘이 서로 장난 치고 있는데 단절감이라니..

⑤ 반어적 표현 없으니 허용하기 힘드네요.

7. ②

-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게 희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① 천막이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좌우로 분리될 수가 없네요.

② 상복에서 밝은 색 옷으로 갈아입은 함이정과 조송인이 등장하면서 장면이 과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전엔 함이정과 조송인이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함이정의 젊은 시절, 조송인의 어린 시절로 바뀐 모습이니깐요. 그럼 답은 쉽게 2번이네요. 어려운 건 없어요.

③ 조명 변화는 있는데, 저 장면에서 인물들의 갈등이 없죠? 갈등이 없는데 갈등 해소는 말이 안 되네요.

④ 사실 2번을 골라서 답을 맞힌 학생들은 많을 텐데, 4번을 확실하게 지운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일단 해설을 보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오세요. 우리가 배운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④를 보면 조송인이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죠? 핵심은 피아노가 '무대 밖'이나 '무대 안'이냐인데, () 부분 중간쯤을 보면 함묘진이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걸어간다고 되어있습니다. 함묘진은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라고 했으니 무대 안의 인물인데, 그가 피아노 옆을 지났다면 피아노도 당연히 무대 안에 있겠네요. 이게 바로 '대사 외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 부분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면 이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알아둡시다.

⑤ 긴장감 완화를 허용하기 힘드네요. 오히려 뭐지? 뭐지? 하면서 극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죠.

8. ④

① 집에서 거리를, 거리에서 집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둘을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허용할 수 있겠죠.

② ‘먼 산정’에서는 나의 자식, 아내, 그리고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생활’, 즉 자신의 현실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먼 산정’에서 자신의 현실을 응시한다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고, ‘먼 산정’이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곳’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네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먼’이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 그리고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본다고 했으니 본인의 생활공간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럼 먼 산정을 생활공간으로 보면 안 되나요? 가까이서 봐야 더 이쁜 법이잖아요.’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해석도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수능 문학’은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해석도 일리가 있다면, 허용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③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당연히 허용 가능한 선지예요.

④ 앞의 내용은 좋은데, 서연의 예술관이 조송인에게 전수된 적이 있나요? 서연과 조송인이 대화를 하는 장면도 없는데, 이 선지를 허용할 수는 없겠네요.

⑤ 저쪽과 이쪽이 대비되는 것도 맞고, 서연이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것도 맞으니까 그럴듯한 선지네요.

9. ③

① 함이정의 저 대사 이후 과거장면으로 바뀌니 당연히 허용 가능하네요!

② 함묘진이 동연, 서연을 찾으면서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의 인물들, 즉 동연, 서연이 등장하고 있으니 허용되겠네요.

③ 조송인은 그냥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정말 커서 물어본 것이지, 그것 때문에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건 아니죠? 동연, 서연은 저 말을 하기 전부터 싸우고 있었어요. 그럼 답은 쉽게 3번이네요.

④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완전 쉽게 허용 가능한 선지니까요.